번뇌 괴로움 알아야 깨달음 이어진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⑪ 이츠키 히로유키(五木寛之)

이츠키 히로유키(五木寛之, 1932~)는 일본에서 문단과 대중 모두에게 호평 받는 인기 작가이다. 왕성한 필력으로 많은 소설과 수필을 집필했고,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 작사 작곡도 하는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본인이 문학상 심사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또한 그의 베스트셀러 작품들이 영화, 드라마, 연극 등으로 제작되어 흥행에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영미 문학 작품을 번역했고 그 번역서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이렇게만 보면 이츠키는 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린 성공한 작가로 비춰진다. 하지만 그의 인생초반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순탄치 못한 그의 과거가 우리나라의 암울한 일제강점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츠키가 갓 난아기 때 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당시 일제치하에 놓여있던 한국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이때 아버지와 함께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오게 되고, 이츠키는 서울과 평양에서 유년기와 소년기 시절을 보내며 자랐다. 어떤 면에서 그의 실질적인 고향은 한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갈 교통편이 마비되자 이츠키의 가족은 난민 신분으로 전락했다. 평양에서 패전을 맞은 그들은 곧바로 이어진 남북 분단과 소련군의 남하로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죽음, 같은 일본인끼리의 배신 등 처참하고 비인간적인 경험을 겪게 된다.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947년이 되고 나서였다.

이때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했는지 이츠키는 "자신이 체험한 비인간적인 일을 쓰는 것은 자기 고백이나 참회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하늘에게 해야 할 일이지 공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때의 일을 밝히기 꺼려했고, 실제로 자신의 귀환 과정을 글로 쓴 작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이츠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 가세는 점점 기울어 갔다. 훗날 명문 와세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비를 내지 못해 결국 제적당했고, 아버지는 끝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어두운 젊은 시절을 보낸 이츠키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시점에서 불교에 심취한 것도 이러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츠키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릴 적 난민생활과 참혹한 전쟁 경험, 특히 어머니의 죽음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상당했던 탓에 본인 스스로가 종교를 통한 치유와 구원을 강하게 열망했던 것 같다. 그의 후반부 활동 대부분이 불교관련 작품 집필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만 보아도 얼마나 불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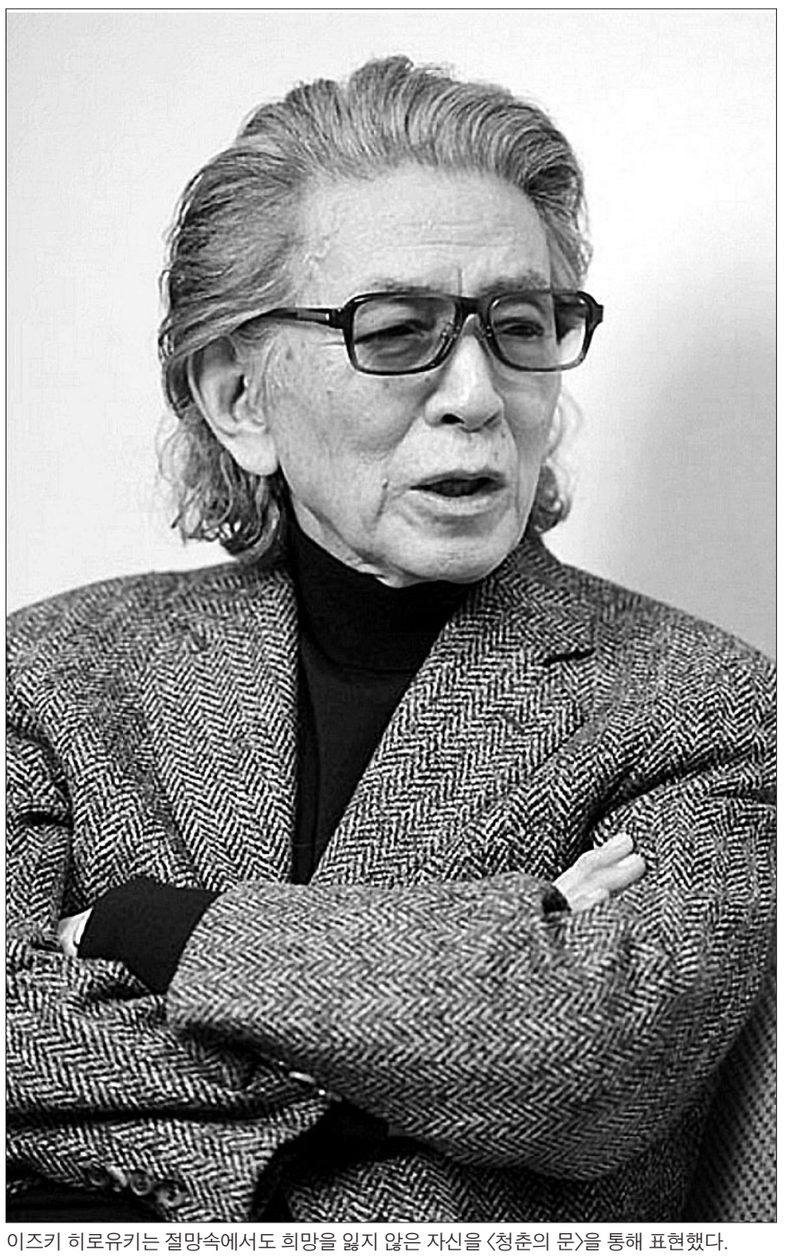
그래서인지 이츠키의 작품에는 절망과 분노, 인간의 무력함이 도사리는 가운데 치유와 구원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군상의 모습이 많이 표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여러 작품 중 이 모든 것을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담아낸 대표작이 〈청춘의 문(青春の門)〉이다.

〈청춘의 문〉은 1969년 〈주간현대〉에 연재를 시작한 이래 1993년까지 계속 이어진 대하소설로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2,200만부에 달한다.

이처럼 〈청춘의 문〉이 오랜 세월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은 격동의 시대,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소설 속 주인공 이부키 신스케(伊吹信介)의 외침이 시대를 초월해

한국전쟁서 난민생활 경험
종교를 통한 치유·구원 갈망
〈청춘의 문〉에 사상 투영



이즈키 히로유키는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자신을 〈청춘의 문〉을 통해 표현했다.

강한 울림을 선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청춘의 문〉은 패망직전 일본을 배경으로 어린 주인공 신스케의 성장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하지만 소설은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해가며 전인적인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내용과는 다르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닌 신스케의 갈등과 욕망, 내면의 심리상태는 번뇌에 괴로워하는 중생의 모습 그 자체이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탄광 광부였다. 하지만 탄광사고로 갱내에 갇힌 징용 조선인들을 구하고 죽음을 맞는다. 어머니는 신스케를 낳는 과정에서 산고로 목숨을 잃고, 새어머니 다에(タエ)의 손에 자라게 된다.

일찍 부모를 여읜 주인공은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여기서 겪게 되는 성장통은 고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구도의 길일 수도 있다.

신스케는 삶이라는 고해(苦海) 속에 던져진 채 홀로 허우적거린다. 부처님이 설하신 고제(苦諦)의 모든 것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고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고의 종류를 여덟 가지로 통찰하셨다. 먼저 생(生)·노(老)·병(病)·사(死) 네 가지가 고통이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물건 등 애착을 일으키는 대상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愛別離苦]이 고통이다. 원망하고 증오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怨憎會苦]이 고통이다. 너무나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求不得苦]이 고통이다. 물질과 감정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우려는 욕구[五蘊盛苦]가 고통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고팔고(四苦八苦)라고 한다. 이 사고팔고를 한 줄로 요약하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이다. 인생에서 어느 것 하나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작은 성과 하나를 내려 해도 인내 속에 노력해야 한다. 멋진 성공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성공은 영원히 성공으로 머물러있지도 않다.

주인공 신스케의 삶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고해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신스케는 어떠한 것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 절망하고 괴로워한다. 부모의 죽음을 어찌할 수 없었고, 가난을 벗어나기도 힘들었다.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이별은 신스케에게 고통만을 남겼다.

소설은 〈청춘의 문〉이라는 제목답게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성문제에 고민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세밀한 문체로 표현했다. 성(性)에 눈뜨기 시작한 주인공은 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만큼 여성에 대한 욕망을 느낀다.

하지만 호기심을 넘어 성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은 오온성고(五蘊盛苦)에 빠진 채 끝 모를 허무함 속에서 괴로워할 뿐이다. 얻을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지만 한편으로 영원한 사랑에 집착했던 신스케는 결국 '얻을 수 없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겹게 성장통을 치러낸다.

〈청춘의 문〉은 단지 신스케의 성장과정만 담긴 소설이 아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열강들의 제국주의에 희생양 됐던 한국의 역사는 물론, 전쟁의 참혹함과 민족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도 다루고 있다. 전쟁은 결국 인간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물이다.

"국가라는 건 말이야, 여차하면 국민 따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린다고. 소련군이 침공했을 때 만주를 생각해봐. 알몸이나 다름없는 개척민의 아녀자들이 소련군 전차 앞에 누더기처럼 내던져졌잖아. 처음에는 신천지 개척의 의용군 어쩌고 하면서 치켜세우며 가난한 산촌에 다 떠들썩하게 선전해서 식민지로 보내놓고는 전쟁에 지니까 모른 척 해버리잖아. 몇 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중국에 버려졌다고. 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알아! 돈에 팔리거나 먹을 것과 맞바꿔져서 그쪽에 남겨진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이야."

(청춘의 문, 도전편 p.474)

소설 속 신스케와 니시자와(西沢)의 대화이다. 만주에서 일본으로 생환에 돌아온 니시자와라는 인물이 신스케에게 들려주는 참혹한 내용의 사실이었다.

이 부분은 작가 이츠키의 체험이 녹아든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츠키와 그의 가족들이 소련군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평양을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 본토인들은 동정은커녕 냉담한 시선으로 이츠키와 생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본토에서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식민지에서 지배자처럼 잘 지내왔으니까 당연한 인과응보가 아니냐고 하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츠키는 "만주와 한국에서 목숨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본토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츠키의 국가관을 엿볼 수 있는데, 국가는 국민을 버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비도덕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약 일본으로 강제 징용되어 왔다가 죽은 조선인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신들의 피해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은 어딘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보아 한국에 대한 일종의 죄의식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자국민에게서도 모멸 당했던 이츠키는 본인이 안심할 수 있는 의지처는 어디인지 강하게 모색했을 것이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불교'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1969년 연재를 시작해 1993년까지 이어온 〈청춘의 문〉은 사실 아직 완결 되지 않은 소설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소설은 미완의 작품인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청춘의 문〉 집필 기간이던 1981년, 교토에 있는 류코쿠대학(龍谷大學)에 청강생이 되어 불교사를 4년간 학습한 점이다. 이츠키는 이때부터 많은 불교작품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며, 비록 작가 본인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후 집필된 〈청춘의 문〉도 불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된다.

〈청춘의 문〉은 조만간 새로운 연재를 앞두고 있으며 이츠키의 열렬한 독자들은 그의 관록과 불교적 사상을 녹여내 작품을 완결시키리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청춘의 문〉은 작가 자신을 투영시킨 주인공 신스케의 방황과 성장과정, 그리고 시대적 혼돈이라는 복선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결정이 내린 참혹한 결과'를 끊임없이 자각시키는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인공 신스케는 고난과 원증회고의 인간관계에 놓여있어도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는다. 고해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희망이라는 방향타를 꼭 쥔 채 악(惡)에 빠지지 않고 선(善)으로 회귀하려는 구도자의 풍모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작가는 신스케를 결코 모범적이고 훌륭한 성품의 인물로 그려내지 않는다. 그저 번뇌 속에서 선과 악의 줄타기를 시키며 신스케를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작품은 마치 '우리 모두는 어리석으며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청춘의 문〉의 주제는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번뇌(煩惱)와 깨달음[菩提]은 둘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번뇌가 곧 깨달음의 인연이 된다는 이 말처럼 번뇌의 괴로움을 자각해야만 비로소 깨달음과 맞닿는 길도 보일 것이다.

근래 〈타력(他力)〉, 〈신의 발견〉, 〈부처의 발견〉 등 불교적 글쓰기를 통해 극복과 치유를 모색하고 이츠키 히로유키의 앞으로의 작품이 기대된다.



주성원(前 불광연구원 연구원)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 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031-255-0066 | 010-3045-0085

부설 태극기 안에 담긴 행복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꽃인 天, 地, 人 삼재사상(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醫聖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전수 동,서양 철학과 현대물리학을 근본도리에 회통 강의

무문관 傳法講主 釋 眞 性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2.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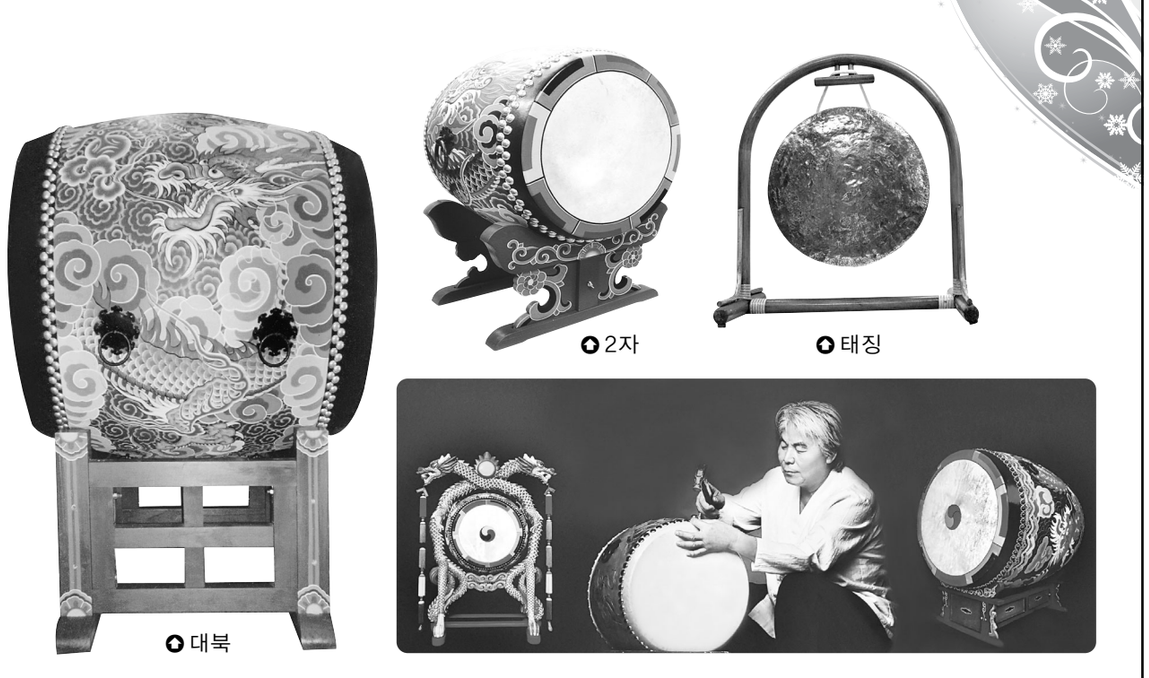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